

박가인

눈 먼 무용수

QTY	VAR	Description	TOTAL
1	외관	<p>가슴까지 내려오는 검은 긴 생머리를 하고 있다. 앞머리는 옆머리와 똑같은 기장으로 길러 내었다.</p> <p>170이 되지 않는 키에 표준보다 마른 몸을 가졌다.</p>	
2	Background	<p>정신과 의사이신 아버지와 간호사이신 어머니 사이에서 첫째로 태어난다.</p> <p>규칙과 합리성을 추구하시던 어머니께서는 사소한 것마저 통제하셨다. 너그러운 아버지는 다 품어주셨으나 무관심에 기반을 둔 애정인 그것은 그녀가 무엇을 원하고 싫어하는지 못하고 잘하는지 알지 못한다. 그렇게 큰 반항 없이 순종적으로 자란 그는 유치원 때 취미반으로 발레를 배운다. 이후 초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배우기기 시작한다. 어머니의 뜻이었던 그것은 이내 그의 뜻이 된다.</p> <p>최고만을 바라는 어머니.</p> <p>최고가 아닌 학교는 의미가 없기에 삼수를 하면서 국내 최고의 무용학과에 들어가지만 그 3년의 시간으로 인해 자신감이 많이 떨어져 열등감, 불안감, 조급함 등의 부정적인 감정들로 불안도가 상당히 높아진 상태이다.</p>	
3	한 마디	“짹짹거리지마.”	
4	성격	<p>원래부터 승부욕이 강한 아이다. 사소한 것에도 지는 것에 예민하게 반응한다.</p> <p>본인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. 외부 자극에 대한 예민도가 상당히 높은 높은 편인데 타인의 시선과 평가가 그 사람을 나타내는 전부라 생각한다.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남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, 결과가 좋지 않다면 하등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.</p> <p>게으르고 아무것도 행동하지 않은채 타인을 탓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만 하는 인간들을 가장 싫어한다.</p>	
5	인물 관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신아단 <p>과거 무대하는 모습과 인터뷰하는 모습을 보고 동경 했던 인물로 그가 이 대학을 희망 했던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. 과거 초등학교 때 딱 한번 만난 적이 있다. 그의 재능을 인정해주며 자신의 무용단에 들어오라는 약속 아닌 약속을 한다.</p> <p>과거처럼 그의 재능을 알아봐주고 선택해준 교수가 인정하고 자랑스러워 할 수가 되는 것이 목표이다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이아인 <p>대학교 입시 때 학원에서 만난 동생으로 당시 각각 나이가 19세, 13세였다. 잠깐 사이 꽤나 친해져 야기던 동생이었다. 하지만 대학교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는 일방적으로 열등감을 느끼며 멀리고 있다.</p>	
#	특징	무관심과 과한 통제 (집)에서 벗어나고 싶어한다.	



C H E C K C L O S E D